정보

Johann Sebastian Bach: Harpsichord Concerto in D minor, BWV 1052
작곡가: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작품명: Harpsichord Concerto in D minor, BWV 1052
장르: 하프시코드 독주와 현악 ·통주저음을 위한 3악장 협주곡
작곡 시기: 최종판은 1730년대 후반으로 분류됨
초연 기록: 정확한 초연 일자와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1730년대 라이프치히의 Collegium Musicum 연주와 연결해 보는 설명이 많다.
Bach Digital: https://www.bach-digital.de/receive/BachDigitalWork_work_00001236
IMSLP: https://imslp.org/wiki/Harpsichord_Concerto_No.1_in_D_minor,BWV_1052 (Bach,_Johann_Sebastian)

Johann Sebastian Bach의 Harpsichord Concerto in D minor, BWV 1052는 하프시코드가 오케스트라의
일부가 아니라 독주자로 전면에 나서는 3악장 협주곡이다 . 빠른 1악장과 3악장은 반복해서 돌아오는
리토르넬로와 날카로운 독주 패시지로 추진력을 만들고, 가운데의 G단조 Adagio 는 일정한 저음 위에 긴
선율을 펼친다. 규모는 작지만 독주부와 현악의 긴장이 매우 선명해, 바흐의 건반 협주곡 가운데 가장 강렬한 작품으로 자주 연주된다.

개요
현재 전해지는 최종 하프시코드판은 1730년대 후반 라이프치히에서 정리된 것으로 분류된다. 바흐가 Leipzig Collegium Musicum을 이끌던 시기의 연주 환경과 연결되며, 국립 베를린 도서관에 보관된 자필 총보 P 234 가 이 판의 핵심 자료다. 자필 총보에는 하프시코드 독주와 두 바이올린 ·비올라 ·통주저음이 한 묶음으로 적혀 있다.

이 협주곡에는 더 이른 판본도 있다. BWV 1052a 또는 BWV 1052.1로 불리는 자료는 오르간 또는
하프시코드 독주와 현악을 위한 형태로 전해지고, 1726년 무렵 첫 두 악장이 칸타타 BWV 146에, 셋째 악장이

BWV 188에 오르간 독주용으로 편곡되었다 . 초기 협주곡이 원래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었는지 오르간을 위한 곡이었는지는 현재의 전승만으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 최종 하프시코드판은 그 여러 단계를 거쳐 독주부를 크게 다듬은 결과다.

출판 정보와 판본

P 234 외에도 D-B Am.B 62와 Thulemeier 4의 총보 ·파트가 최종판의 전승을 보여 준다. 19세기에는 Wilhelm Rust가 편집한 Bach-Gesellschaft Ausgabe 제 17권 (1869)에 실렸고, 20세기 말에는 Werner Breig가 편집한 Neue Bach-Ausgabe VII/4(1999)로 새롭게 정리되었다 . 이 판본들은 하프시코드 독주부의 수정과 현악 파트의 전승을 서로 다른 자료와 대조한다.

BWV 146과 BWV 188의 오르간 악장은 이 협주곡과 밀접하지만 , 오보에가 더해진 칸타타 편곡을 최종 하프시코드 협주곡의 편성으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오르간 ·두 대의 피아노 ·피아노 네 손을 위한 후대 편곡도 별도의 버전이다.

소요 시간

세 악장을 이어 연주하면 대체로 21–23분이 걸린다. Ton Koopman과 Amsterdam Baroque Orchestra의 1990년 발매는 22분 27초로 기록되어 있다. 빠른 악장의 템포, 카덴차의 길이, 반복을 얼마나 살리는지에
따라 음반별 시간이 달라진다.

편성

독주: 하프시코드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저음: 통주저음

최종판에는 목관 ·금관 ·팀파니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프시코드는 통주저음의 화음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오케스트라가 제시한 재료를 쪼개고 확장하며 독립적인 선율과 빠른 음형을 연주한다. 칸타타 BWV 146·188 의 오르간판에서 보이는 오보에와 다른 악기는 이 기준 편성과 구별한다.

세 악장의 구성

I. Allegro: 리토르넬로와 독주의 충돌

첫 악장은 D단조의 빠른 리토르넬로로 시작한다. 현악이 강한 윤곽의 주제를 제시하면 하프시코드가 빠른 16 분음표와 도약으로 응답하고, 두 편성이 짧은 단위로 서로의 재료를 이어받는다 . 오케스트라의 귀환은 곡의 기둥을 세우고, 독주부는 그 사이를 자유롭게 파고들며 음역을 넓힌다.

중간에는 독주 하프시코드가 긴 카덴차를 펼치는 구간이 놓인다. 이때 오케스트라는 잠시 뒤로 물러나고, 독주자는 앞에서 제시된 음형을 분해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한다. 카덴차 뒤에 리토르넬로가 돌아오면서 처음의 긴장이 다시 모이고, 악장은 빠른 추진력을 유지한 채 닫힌다.

II. `Adagio`: G단조의 지속되는 선율

둘째 악장은 G단조의 `Adagio`다. 일정한 저음 패턴이 12마디 단위로 반복되고, 그 위에서 하프시코드와 현악의 선율이 느린 호흡으로 이어진다. 리토르넬로가 쉴 새 없이 충돌하던 첫 악장과 달리, 여기서는 각 음이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길다.

하프시코드는 화려한 장식보다 단선율의 표정과 미세한 불협화를 앞세운다. 현악은 그 선율을 받치면서도 독주부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저음이 돌아올 때마다 음악은 처음의 어두운 공간으로 되돌아간다. 이 악장의 정적인 긴장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깊은 대비를 이룬다.

III. `Allegro`: 끊임없이 돌아오는 리듬

마지막 악장은 다시 빠른 `Allegro`로 전환된다. 짧게 튀어 오르는 리듬과 급격한 음역 이동이 하프시코드의 손놀림을 전면에 내세우고, 현악은 첫 악장과 비슷한 리토르넬로 방식으로 독주를 둘러싼다. 두 악장은 같은 협주곡 양식을 공유하지만, 마지막 악장은 더 압축된 리듬과 짧은 독주 카덴차로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

오케스트라의 주제가 돌아올 때마다 독주부는 같은 재료를 장식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마지막에는 하프시코드와 현악이 한꺼번에 속도를 높이며 D단조의 긴장을 분명한 종결로 이끈다.

독주 악기의 역할

이 곡에서 하프시코드는 현악 위에 장식을 얹는 반주 악기가 아니다. 리토르넬로의 주제를 쪼개고, 그 일부를 긴 음형으로 바꾸며, 오케스트라와 다른 리듬을 동시에 진행한다. 하프시코드의 음량은 현대 피아노보다 작지만, 반복되는 주제와 빠른 음형이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독주자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초기 판본과 칸타타의 관계

BWV 1052의 이른 판은 오르간 또는 하프시코드 독주를 위한 자료로 분류된다. 바흐는 1720년대 중반 이 음악의 첫 두 악장을 칸타타 BWV 146에, 셋째 악장을 BWV 188에 옮겼고, 칸타타에서는 오르간이 독주를 맡는다. 이 편곡은 협주곡이 이미 완성된 뒤 다른 장르에 재사용된 흔적이기도 하고, 협주곡의 이전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칸타타의 오르간 악장과 1730년대 하프시코드판은 같은 총보가 아니다. 최종판 P 234에서 독주부는 다시 고쳐졌고, 현악 파트도 여러 사본을 거치며 전승되었다. 이런 판본의 차이는 오늘날 연주자가 하프시코드의 장식, 카덴차, 통주저음의 역할을 선택할 때 참고할 역사적 배경이 된다.

라이프치히의 연주 맥락과 수용
바흐는 1729년부터 Leipzig Collegium Musicum을 이끌며 Zimmermann의 커피하우스와 정원에서 정기 연주를 열었다. 하프시코드 협주곡 대부분은 이 단체의 실내악적 환경과 연결해 설명되며, BWV 1052도 1730 년대 라이프치히에서 그와 같은 연주회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정한 첫 공연의 날짜와 독주자를
적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19세기 이후 이 작품은 피아노와 오르간으로도 연주되었고 , Johannes Brahms가 만든 셋째 악장 카덴차가
별도로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원전 악기 하프시코드와 소편성 현악을 결합한 연주가 많으며, 현대 피아노를
사용한 녹음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악기와 현악 규모를 택하는가에 따라 독주부의 선명도와 저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

주요 레코딩

Ton Koopman / Amsterdam Baroque Orchestra (1990년 발매): 세 악장 합계 22분 27
초로 기록된 연주다. 하프시코드와 현악의 빠른 응답을 또렷하게 드러내며, 다른 협주곡들과 함께
바흐의 건반 협주곡 전집을 구성한다.
Andreas Staier / Freiburger Barockorchester (2015년 발매): 일곱 편의 단일
하프시코드 협주곡을 109분 07초에 담은 전집이다. 소편성 현악과 시대악기 하프시코드의 조합을
한 세트 안에서 비교할 수 있다.
Marcin Świątkiewicz와 현악 4중주: BWV 1052–1054를 한 파트에 가깝게 연주한 현대
발매로, 빠른 템포와 독일식 하프시코드의 넓은 음역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협주곡을 대규모
오케스트라보다 실내악에 가까운 대화로 듣는 사례다.

주요 자료

Bach Digital, 최종판 BWV 1052.2: 개정판의 연대, 편성, 자필 총보와 사본, Neue Bach-Ausgabe 정보.
Bach Digital, 이른 판 BWV 1052.1: 오르간 ·하프시코드 판과 BWV 146·188의 관계.

Henle Blog, 하프시코드 협주곡 자필 총보: P 234의 묶음과 독주부 수정에 관한 편집자 해설.

Boston Baroque, J. S. Bach의 독주 하프시코드 협주곡: 라이프치히 Collegium Musicum, 구조와
원작 가설에 관한 프로그램 해설.
IMSLP, Harpsichord Concerto No. 1 in D minor, BWV 1052: 세 악장 표기, 자필 ·BGA·NBA 악보 목록과 공개 녹음.
Early Music Review, Andreas Staier 음반 평론: 시대악기 편성, 현악 규모와 카덴차에 관한 특정 발매의 관찰.
Classics Today, 소편성 하프시코드 협주곡 평론: Świątkiewicz의 연주와 여러 하프시코드 녹음의 템포 ·음색 비교.
MusicBrainz, Ton Koopman 발매 기록: 1990년 발매의 세 악장 트랙 시간과 연주자 정보.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3:28 UTC by □□□
Updated 2026-10-04 10:03:28 UTC by □□□